

종합 토론

다케우치 : 그러면 종합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의 테마 < 동아시아의 사생학 > 은 단순히 서양이 아니면 이 쪽, 이런 양자택일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동아시아를 주제로 삼음으로써 보다 넓게 내지는 보다 깊게, 정효운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사생학에 관한 새로운 보편,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 그러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분들의 발언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가나모리 : 동경대학 교육학부의 가나모리 오사무라고 합니다. 전공은 프랑스 현대철학입니다만, 어느 때인가 미국의 생명 윤리의 역사에 대해 조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다케우치 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오늘 여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생학을 약간 벗어난 생명윤리에 가까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사상적 혹은 문학적인 내용이 중심이었는데, 저는 제 개인의 경험에 기초해서 어떤 정치적인 정보를 하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현재까지 10년 가까이, 문부과학성의 ES 세포 심사위원을 맡아 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ES 세포는 1998년말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일본의 의학계가 이에 재빨리 반응하여 일본에서도 ES 세포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지극히 초창기 때부

터 이 위원회의 일원이었는데, 본래, 이러한 문제에는 보다 포괄적인 생명윤리 법률을 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통합적인 법률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엄사라든지, 중절 문제라든지, ES 세포 문제 등이, 개별 문제로서 각기 다른 부처에서 논의되고, 게다가 법률이 아니라 행정지침이라는, 즉 형사죄가 적용되지 않는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이렇게 해 주시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특정적인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ES 세포 이야기로 되돌아가면, 이미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정란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비교적 매우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1년에 평균 7-8 회 정도 문부과학성에서 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하는데, 심사 서류만 해도 두께가 약 7-8 센치 정도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관련 연구자들은 이래서는 연구를 할 수 없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황우석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은 일본에도 여러 가지 충격을 줬는데, 한국에서 실제 사정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일본에서 그 당시 방송된 내용에 따르면, 젊은 여성이 국가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난자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지요.

그런데 그 후 상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동경대학의 야마나카 교수에 의해 iPS 세포라는 것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iPS 세포는 피부 등으로 부터도 가능하기 때문에 윤리상의 문제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iPS 세포와 ES 세포는 양쪽 모두 비슷한 성질이 있고 게다가 목적도 비슷하기 때문에, iPS 세포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ES 세포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대폭적인 규제해제가 이루어져 몇 년 전까지 1년에 평균 7-8 회에 두꺼운 서류를 가지고 행하던 심사가 현재는 1-2 회로, 서류도 아주 얇아졌습니다. ES 세포에 대해서 국가는 이제 거의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침은 계속 지켜야 한다는 신사협정은 있지만, 사실상의 규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iPS 세포는 피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ES 세포는 수정

란의 파괴가 필요하다는 것. 조금 전 이 이야기는 사생학과는 간접적인 관계 밖에 없다고 말씀 드렸습시다만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정란이라는, 원래대로라면 태아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순수하게 물질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관한 감성이라고 할까요, sensibility 가 역시 산업화 속에서 파괴되기 시작했다고 말 할 수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조금 전 이 이야기는 사생학 그 자체의 화제는 아니라고 말씀 드렸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관계가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상, 대부분 순수한 정보 제공입니다만, 일본의 하나의 현상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케우치 : 소중한 지적, 감사합니다. 가나모리 선생님의 발언에 대해 한국측에서 뭔가 코멘트 없으십니까?

오진탁 : 저는 과학을 전공하진 않지만, 죽음에 대한 정의가 너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만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는 심폐사, 뇌사를 가지고 죽음을 판정을 하는데, 그것이 의학적인 죽음 정의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에 비해 철학이나 생사학의 영향력이 미약한 현실에서, 그것이 마치 죽음 정의 그 자체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나모리 : 뇌사에 관해서는 작년 2009년에 법률의 개정되어 2010년부터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뇌사의 경우 장기 제공자가 대단히 적은 관계로 이것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증에,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당신은 장기를 제공할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사 표시를 전원에게 하도록 하는, 반드시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죽음에 대한 이해 등이 너무 과학적인 측면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이지만, 문제는 단지 그것만

은 아니어서, 제가 보기에는, 과학 그 자체의 연구 방법이 순수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탐구한다기 보다는, 그런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그로 인에 만들어진 사실을 가지고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뇌사의 경우만 해도, 이식자가 증가하면 대량의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데, 그 배경에는 제약회사가 존재하고, 그렇게 되면 제약회사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 병에 걸린 아이를 이식을 통해 살리고자 하는 본래의 의학적 목적과 제약 회사 등의 이익 관심 등이 융합되어 버리는 것 자체가 아마도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진탁: 예를 들면, 뇌사의 경우, 그것은 죽음 그 자체의 정의로서 유효한 것인가요. 문제는 뇌사가 죽음 정의 자체라고 한다면,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라는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학적인 정의가 아니라 죽음 정의 일반으로까지 확대돼서 지금 실제로들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이케자와: 오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 발표에서 오 선생님이 죽음의 정의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의미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주로 일본의 생명 윤리 쪽의 논의에서는 ‘죽음의 정의는 한 가지가 아니다’ 라는 것이 당연한 상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 선생님이 죽음의 임상적 정의를 내리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죽음의 현상적 정의를 내리라고 하시는 건지, 그 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오진탁: 임상적, 현상적 문제를 넘어선 즉 임상 및 과학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체적인 정의입니다. 임상만이 아니라, 의학적인, 과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생사학적인 정의 말입니다. 생사학이 죽음의 문제를 연구하는데, 생사학에서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거죠. 생사학적 의미에 있어서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미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케자와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하나의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말씀 드리면,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1990년대 전반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는 뇌사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는데, 세계에서 뇌사에 관한 논의를 이렇게 활발하게 해온 나라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나온 논점의 한 가지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죽음이라는, 즉 죽음에 관한 하나의 현상은 없다는 견해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죽음이라는 경우와 나와 가까운 이의 죽음이라는 경우에 있어, 똑같이 죽음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현상으로서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 자신이 심장은 뛰지만 의식이 없을 경우, 그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부모가 같은 상태가 된다면, 어떤 상태든 좋으니 살아만 달라고, 분명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내 죽음과 내 부모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현상으로서 전혀 다르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만, 그와 같은 것은 일본의 생명윤리에서 나온 하나의 독특한 논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진탁 : 방금 일본의 생명윤리에서는 죽음의 정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케자와 : 단일한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상적인 정의는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곤란하죠.

오진탁 : 지금 생사학에서 필요한 건 생사학적 죽음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퀴블로 로스는 죽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육신이라는 것을 벗고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고, 현대 사회는 죽음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이케자와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케자와 : 질문의 의도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 드리면, 저는 오 선생님이 사용하고 계신 ‘정의’ 라는 의미로 ‘정의’ 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종교학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필

연적인 귀결인데요, 제게 있어 정의라는 말은,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공통의 약속 사항입니다. 오 선생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죽음의 정의라는 것은, 저는 ‘본질 규정’ 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죽음의 본질 규정에 관해서는, 제가 논문에서 인용한 앵겔하트의 견해가 가장 최대공약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약하면, 다원적인 상황에서, 현재사회에서는, ‘이것이야 말로 죽음이다’ 라는 문화를 우리는 더 이상 공유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게 현상(現狀) 일 것입니다. 이것은 좋고 싫고를 떠난 현상일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우리가 완전히 공유할 수 있는 죽음의 본질 규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르지만, 사생학은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논의 없이 본질 규정을 하는 것은 아마 종교일 테지요.(웃음)

오진탁: 일반인들은 우리들의 논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들이 합의된 어떤 최소한의 공약수라고 할까, 어떤 포괄적인 죽음의 정의도 없이 사생학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한다는 것이 과연 그 나라 그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케자와: 그것은 비교적 간단하지 않을까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만드는 것이 학문이고 운동입니다.

다케우치: 논의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최일범 선생님이 발표에서, 죽은 뒤에도 산 자들의 정성에 의해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죽은 것인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것인가요? 그것만 봐도 상당히 다른 뉘앙스들이 있는데, 지금 오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자연 혹은 생물학적인 본질 규정 같은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뒤에도 산 자들의 정성에 의해 살아있다고 하면, 죽음이라는 문제는 정말로 넓은 범위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제에 대해 계속해주셔도 상관 없고, 다른 문제도 상관 없으니 의

건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쿠마: 동경대학 특임연구원 후쿠마 사토시라고 합니다. 전공은 윤리학인데, 영어권, 특히 미국의 존 롤즈라는 정치철학자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회역학(社會疫學)이라고, 의학, 사회학, 철학을 접목시킨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최근에 내놓은 명제에, '경제 격차는 건강에 안 좋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쪽의 데이터에 의하면, 경제 격차가 있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매년 3만 명 정도의 자살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까 발표를 통해 한국이 일본보다 자살자의 비율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에서도 현재,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최근 10년 동안 경제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최일범 선생님이 발표에서, 핵가족화로 인해 조부모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을 그다지 실감하지 못하게 되어 자살자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도 경제 발전 중에 경제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경제 격차의 확대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연결돼서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자살의 요인은 여러 자지가 있겠지만, 자살에 이르는 원인은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한국 경제의 경제 격차와 자살과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오진탁: 경제 격차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본은 자살대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죠. 이제 우리는 자살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IMF가 90년 말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일본이나 우리 나라나 모두 치열해서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정규직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수백 대 일 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 정규직 자리는 많이 늘어났지만 정규직 자리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젊은 계층이 좌절을 느끼는 경우가 평

장히 많습니다.

우리 나라의 자살률이 높아진 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특히 97년 외환 위기 이후에도, 구체적인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적 대책이 크게 미약하고, 예를 들면, 일본은 자살 예방법이 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일년 동안 자살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왜 죽었는지, 그에 관한 자살백서가 매년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노력이 일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케우치 :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한 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만, 한국이나 일본의 높은 자살률은 분명 격차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표현이 어렵지만 ‘죽기 쉬움’도 다른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의 사생관에는, 죽는다는 것을 ‘왕생한다’, 내지는 ‘성불한다’ 등 불교 용어로 대단히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표현하는 면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편안해지는 것, 좋은 세계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 자체는 사생관으로서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살기 힘들’과 결합되면 자살이 급증하는 현상이 일본의 경우에는 있다고 봅니다만, 한국의 경우는 그러한 배경은 없는지. 죽음의 문제, 죽기 쉬움 같은 문제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효운 : 제가 볼 때 지금 죽음하고 자살을 동일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큰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자살을 이야기하면서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노인들의 자살률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죽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경제적, 또는 정신적, 심리적인 것 외에 고독사라든지 그런 것도 존재 하고, 그 다음에 앞서 슬라이드에서 봤던 최윤희 씨의 자살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였거든요. 즉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측면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문학자들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문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떤 면은 반대를 하지만 어떤 면은 동

의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화학자인 이덕환 교수님이 계시는데, 자연 과학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어보고 다시 좌담회로 돌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덕환: 저는 이덕환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이론화학입니다. 화학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강 대학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 협동과정 주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인문학자들의 모임이 상당히 낯선 모임인데, 우선 7시간 동안 굉장히 진지하고 강도 높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혹하다, 비인간적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웃음)

아까 가나모리 선생님께서 황우석 사태 때 한국 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난자를 제공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황우석이라는 사람이 사교의 교주 같은 엄청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자살 문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는데, 경제적 격차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경쟁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는데 그 경쟁의 법칙을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아주 불합리하고 설득력이 없는 경쟁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현실인데 어쩔 수 없이 회피도 못하고, 그러나 그 경쟁을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0여년 사이에 가정교육이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사회교육이라는 말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교육은 학교에 맡겨져 있고 학교는 극도로 비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의 실종, 이것도 아마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 들은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고 저한테 굉장히 신선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좀 더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나눠 주셨으면 싶은데, 사생학이라는 것이 최근 들어 더 중요한 과제로 우리 앞에 등장하

게 된 데에는 자유, 인권, 평등 이러한 근대적 개념이 본격적으로 모든 사회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부터가 아닐런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 어떤 특정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사회의 저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모든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같은 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의 민주화에 따른 우리의 인식의 변화, 이런 것이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히 20 세기에 들어와서 기술 발전이 엄청납니다. 특히 의료 분야의 기술 발전이 엄청나서, 이제는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상당한 수준까지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위루(胃瘻)와 같은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연명을 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으로 연명이 가능한 방법이 생기고 있거든요. 따라서 크게 두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든 사람의 죽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처음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시다만, 우선 사회의 민주화와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의 문제, 그리고 두번째로 기술의 진보에 따른 죽음의 과정의 변화에 대한 견해나 의견입니다. 그러한 측면도 이와 같은 사생학 논의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지난 50 년 동안의 자연과학의 발전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생학, 죽음에 대한 인식도 결국은 우리의 우주관, 자연관, 생명관, 이런 것과 결코 무관할 수 없을 텐데, 이 세 가지가 지난 50 년 동안에 거의 180 도 달라졌습니다. 우선 우주의 법칙에 대한, 우주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달라졌고요. 별에 대한 이야기,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 우주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 천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달라졌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쓰고 있습니다.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도 지난 50 년 동안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DNA 구조가 밝혀졌고,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이제 문화적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민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정의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뇌가 크다는 사실이었는데, 사실은 코끼리의 뇌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월등하게 우월한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지금 자연과학측에서는 집단지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가 전부 연결

되어 있으면서 한 사람의 지능이 아니라 70 억의 지능이 한꺼번에 연동되어 작동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분야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이란 무엇인가,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뇌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생각하고, 환경도 뇌의 일부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움직임들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필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연결되어있다, 이런 small world society 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주관, 생명관, 자연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왔을 때, <동아시아의 사생학> 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그러나 아까 ‘이것이 지역적인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사생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로부터도 적극적으로 현대의 사생학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케우치 :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덕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사물을 보는 견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단, 삶의 방식, 죽음의 방식이라는 것은 발명을 한다든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리고 죽어간 죽음방식을 토대로 하여, 그 위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죽음방식, 보다 나은 삶의 방식이 가능한 가를 생각하는 것이 사생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생학에서는 현재의 상황과 전통적인 문제를 종합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덕환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